한국고전연구 61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3/67~89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3.61.67

대학 전공교육으로서의 고전소설 수업 방안 연구

-쓰기 실습과 주제어 접근을 중심으로*

정선희**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대학에서의 고전소설 수업 현황
3. 대학에서의 고전소설 수업 방안
   1) 고전소설로 다시 쓰기 실습
   2) 주제어로 읽는 고전소설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대학의 고전문학 관련 전공교육이 위기에 봉착했음에 공감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전소설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전국의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고전소설 관련 전공과목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교과목 개설 현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과목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고전서사문학의 서사를 변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서사로 다시 쓸 것을 제안하는 수업을 하였다. 수업의 초반부에는 현대의 문화콘텐츠 중에서 자신이 기획하고자 하는 분야의 본받을 만한 콘텐츠를 분석하게 하였다. 웹소설, 웹툰, 영화, 연극, 뮤지컬, 드라마, 게임, 광고, 화보 등 각 콘텐츠의 특성과 인기 요인 등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후, 고전서사문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게 하였다. 선택한 작품의 서사구조의 특징, 인물 형상화 등에 대해 살핀 뒤, 이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선택한 고전서사문학을 보면, 만복사저포기, 숙향전, 금방울전, 장화홍련전, 운영전, 주생전, 박씨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www.kci.go.kr

전, 홍계월전, 방한림전, 심청전, 콩쥐팥쥐전, 남궁선생전, 유광억전, 검녀, 옥루몽, 박문수전, 처용설화, 비형랑 설화, 온달 설화, 만날고개 설화, 여우구슬, 구렁이 왕자, 열녀전들, 호동서락기 등 다양했다.

위의 두 가지 예비 작업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갈 기획을 하게 했는데, 그 기획의 핵심에는 선택한 문화콘텐츠에 맞게 고전서사문학의 서사를 다시 쓰는 일이 있었다. 고전서사문학을 읽고 분석한 뒤, 주제를 재설정하여 서사를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해 고전에 대한 지식이나 감상의 깊이와 폭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 뒤 지금의 자신이나 동시대의 콘텐츠 수요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생각함으로써 자기 탐색과 함께 인간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탐구하게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콘텐츠 향유자들이 공감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인물형을 구상하였는데 대체로 주체적인 여성상, 탐색하고 여행하는 인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인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인물, 행복한 결말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주제어 즉 키워드(keyword)로 고전소설을 읽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삶과 고전소설이 관련 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한 방안임과 동시에 현대문학 작품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방안이기도 하다. 수업에서는 먼저, 주제어 탐구의 예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문학이 어떤 특징이 있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느끼게 하였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느꼈는가를 체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후에는 고전소설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진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자기표현 양상, 개인의 소외 양상, 여가나 취미 활동, 예술과 놀이, 노년, 죽음, 부부, 애정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소설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강의하고, 학생들은 이러한 주제어들이 다른 고전문학 장르나 현대문학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찾아 보고서를 쓰게 하였다. 주제어들 중 하나를 택하여 그것이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독서의 힘도 늘어나고 고전문학을 친근하게 생각하게도 되었다. 아울러 그 주제어가 표현하는 바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논하게 함으로써 쓰기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주제어 대학 전공교육, 고전소설 교육, 고전문학 교육, 문화콘텐츠, 다시 쓰기, 주제어

www.kci.go.kr

1. 들어가는 말

2022년 5월 국어국문학회에서는 '대학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위기를 진단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교육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어국문학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대학교육의 위기를 체감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그 중 고전문학 분야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1)]

고전시가 분야 발표자는 지식 교육의 한계를 말하면서 역량 개발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고전문학을 통하여 마음 습관과 사고력, 의사소통력 등을 키워 인간의 삶과 가치를 반성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통찰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의 무용도성 즉 작가의 의도나 유용성과 상관없이,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문학을 하자고 하면서, 콘텐츠 기획, 다시 쓰기, 번역해 보기 등 실습형 교과목들을 제안하였다.[2)]

고전서사 분야 발표자는 현재의 대학생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고전산문이나 고전시가와 같은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앞으로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였다. 최근 국어국문학과들에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 않고 교육 내용이

1) 중·고등학교에서의 고전문학교육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고전문학교육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 않다. 중요한 논의들로는 2005년 한국고소설학회 '고전소설의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방안', 2007년 한국고전연구학회 '대학에서의 고전문학교육', 2010년 한국고전연구학회 '고전문학을 활용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2022년 한국고전연구학회 '고전문학을 활용한 대학 교양교육', 2023년 2월 한국고전연구학회 '고전문학을 활용한 대학 전공교육' 발표논문들이 있다.

2) 최홍원, 「고전시가 위기의 진단과 문제 해결의 좌표-관계성의 복원과 이해의 지평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2.

www.kci.go.kr

다소 느슨해질 수 있어 문제라면서 문학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고, 문학적 주체를 양성하며, 문화 생산력과 활용력, 창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교육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여 실습 교육과 프로젝트형 교육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다양한 형태로의 글쓰기는 물론이고 디지털 서사나 다매체 예술을 포괄하는 창작 실습을 제안하였다.[3)]

고전문학교육 전반의 현황을 진단한 발표자도 현재의 교육은 지식 전수 모델의 한계에 다달했으므로 역량 개발 모델을 들여와 참고하자고 제안하였다. 마찬가지로 문화콘텐츠 교육의 한계를 짚고 문학적 주체를 양성하는 쪽으로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서사학과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문식력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감 교육, 미학 교육, 인간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다.[4)]

이들 발표에서는 모두 지식 전수의 교육보다는 실습형 교육, 다매체나 디지털 문화콘텐츠 창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적확한 지적이지만, 고전문학에 대한 지식 저하와 깊이 있는 사색이나 문학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학생들이 고전문학 작품들을 직접 탐독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교육 미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5)] 또한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소설 관련 과목을 어떻게 수업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한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학과에는 고전소설 관련 과목이 네 과목이 있다. 지식 전수형이 둘, 문제해결이나 실습형이 둘이다. 지식 전수형은 고전소설 작

3) 엄태웅, 「대학 고전서사 교육의 목적과 방법 재고」,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2.

4) 이정원,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변화 방향」,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2.

5) 정제호, 「엄태웅의 대학 고전서사교육의 목적과 방법 재고에 대한 토론문」,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2.

www.kci.go.kr

품 읽기, 고전소설론이고, 후자는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주제로 읽는 고전문학이라는 과목이다. 이 중에서 후자의 두 과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과목에서는 콘텐츠 기획을 하되 고전서사문학을 소재로 하여 '서사'를 담아내는 쪽으로 유도하였기에 그 결과물들이 고전소설 다시 쓰기에 가까웠다. 이에 수업 방안으로는 '고전소설로 다시 쓰기 실습'과 '주제어로 읽는 고전소설'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에서의 고전소설 수업 현황을 살펴 한계와 변화를 진단한 뒤, 고전소설 수업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최근의 연구 중에서 '고전소설로 다시 쓰기 실습'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 고전소설을 보조 인물 중심으로 다시 감상하고 다시 쓰는 수업을 제안한 연구를 비롯하여[6], 유튜브들에서 〈열녀춘향수절가〉가 어떻게 다시 쓰였는지를 고찰한 연구[7], 연극 〈양반전〉과 낭독공연 앨범 〈양반전〉에서 고전소설 〈양반전〉이 변개되는 양상을 다루면서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교육을 제안하는 연구[8], 〈이생규장전〉을 다시 쓰는 활동이 갖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논한 연구[9], 〈심청전〉과 영화 〈마담 뺑덕〉을 비교하여 고전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 고전문학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연구[10],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영화 〈전

6) 서보영, 「보조인물 중심의 고전소설 감상 양상 고찰 - 〈숙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20.

7) 서보영, 「고전소설 다시쓰기에서 '저자적 독자'의 양상과 국어교육적 의미-유투브의 〈열녀춘향수절가〉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3,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8) 장예준, 「연극 〈양반전〉 및 낭독공연앨범 〈양반전〉의 원작 변개 양상과 성과-고전서사 및 고전소설 활용 콘텐츠 창작 교육 시사점 논의를 겸하여」, 『국제어문』 92, 국제어문학회, 2022.

9) 김지혜, 「고전소설 〈이생규장전〉 다시쓰기 활동과 문학교육적 의의-'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2.

10) 김태웅,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을 통한 고전문학교육 연구」, 『문화와 융합』 44-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www.kci.go.kr

우치〉에서 〈홍길동전〉과 〈전우치전〉이 변용된 양상을 살펴 고전소설 교육에서 문화콘텐츠가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한 연구[11] 등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제페토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게더타운 전시회를 구성하는 수업에 대해 보고한 논문[12]도 있다.

'주제어로 읽는 고전소설'과 관련해서는 각종 모티프나 소재, 주제, 생활문화, 감성 연구들과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13], 『한국문학주제론』[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대학에서의 고전소설 수업 현황

2022년 10월 전국의 80여 개 4년제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고전소설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하였다.

고전소설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 조사 범위: 전국 4년제 대학 중 '고전소설'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된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 조사 대상: 전국 83개 대학, 72(캠퍼스 포함 76)개의 국어국문학과[15], 40개의 국어교육과[16]에 개설된 '고전소설'관련 교과목 448강좌.

11) 정보미, 「고전소설교육에서 문화콘텐츠의 위상과 역할-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과 영화 〈전우치〉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46, 한성어문학회, 2022.

12) 김수연, 「디지털 감수성과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 - 메타버스를 활용한 〈고전문학과 영상〉(DT)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6, 이화어문학회, 2022.

13) 김미현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사전』 1~5, 보고사, 2013.

14) 이재선외, 『한국문학 주제론-우리 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서강대 출판부, 2009 재판.

15)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글로벌어문학부, 미디어문화학부, 웹문예학과, 한국어문학부/과,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언어문학과, 한국언어문화전공를 포함함.

www.kci.go.kr

■ ‘고전소설’과 관련된 과목명으로 개설

국어국문학과	
교과목명	개설 학교 수
고전소설론[17]	36
고전소설강독[18]	19
고전소설의이해[19]	20
고소설론과작가	1
한국고전소설	1
한국고전소설사	1
고전소설연구[20]	2
고전소설과판소리	1
판소리계소설과매체	1

국어교육과	
교과목명	개설 학교 수
고전소설론[21]	10
고전소설교육론[22]	14
고전소설강독[23]	2
고전소설작품론	2

■ ‘고전산문’이 들어간 관련 교과목

국어국문학과	
교과목명	개설 학교 수
고전산문강독[24]	6
고전산문의이해[25]	4
고전산문론	1

국어교육과	
교과목명	개설 학교 수
고전산문교육론[26]	18
고전산문론	3
고전산문강독[27]	7
고전산문특강	1
고전산문의미학	1

16) 한국어교육학과를 포함함.

17) ‘한국고전소설론, 고소설론, 한국고소설론’으로 개설된 과목 포함.

18) ‘한국고전소설강독, 옛소설강독, 고전소설읽기, 고전소설작품읽기, 고전소설원전읽기, 고전소설텍스트읽기, 한국고전소설읽기’로 개설된 과목 포함.

19) ‘고소설의이해, 한국고전소설의이해, 한국옛소설의이해, 고전소설의세계, 한국고전소설의세계’로 개설된 과목 포함.

20) ‘한국고전소설연구’로 개설된 과목 포함.

21) ‘고소설론’으로 개설된 과목 포함.

22) ‘고소설교육론, 한국고전소설교육론, 고대소설교육론, 고전소설작품교육론, 고전소설이론과지도법’으로 개설된 과목 포함.

23) ‘고소설강독’으로 개설된 과목 포함.

www.kci.go.kr

■ ‘서사’가 들어간 관련 교과목

국어국문학과	
교과목명	개설 학교 수
고전서사문학강독	1
고전서사의이해	1

이상 총 83개 학교의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상황을 다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고전소설 관련 교과목

국어국문학과		
교과목명		개설 학교 수
고전소설	고전소설론	23
	한국고전소설론	5
	고소설론	7
	한국고소설론	1
	고소설론과작가	1
	한국고전소설	1
	한국고전소설사	1
	고전소설강독	9
	한국고전소설강독	1
	옛소설강독	1
	고전소설읽기	1
	고전소설작품읽기	1
	고전소설원전읽기	2
	고전소설텍스트읽기	1

국어교육과		
교과목명		개설 학교 수
고전소설	고소설교육론	3
	고전소설교육론	7
	한국고전소설교육론	1
	고대소설교육론	1
	고전소설작품교육론	1
	고전소설이론과지도법	1
	고소설강독	1
	고전소설강독	1
	고전소설론	9
	고소설론	1
	고전소설작품론	2
고전산문	고전산문교육론	15
	한국고전산문교육론	1
	고전산문교육	1

24) ‘한국고전산문강독, 고전산문읽기’로 개설된 과목 포함.
25) ‘고전산문의세계’로 개설된 과목 포함.
26) ‘한국고전산문교육론, 고전산문교육’으로 개설된 과목 포함.
27) ‘고전산문작품강독, 고전산문교육작품강독’으로 개설된 과목 포함.

www.kci.go.kr

	한국고전소설읽기	3
	고전소설의이해	12
	고소설의이해	3
	한국고전소설의이해	1
	한국옛소설의이해	1
	고전소설의세계	2
	한국고전소설의세계	1
	고전소설연구	1
	한국고전소설연구	1
	고전소설과판소리	1
	판소리계소설과매체	1
고전산문	고전산문강독	4
	한국고전산문강독	1
	고전산문읽기	1
	고전산문의이해	2
	고전산문의세계	2
	고전산문론	1
고전서사	고전서사문학강독	1
	고전서사의이해	1

	고전산문론	3
	고전산문강독	5
	고전산문작품강독	1
	고전산문교육작품강독	1
	고전산문특강	1
	고전산문의미학	1

위의 현황을 2014년 4월에 조사했던 것[28]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것들에만 주목해보기로 한다. 우선,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소설론' 관련 과목으로 개설된 학교 수는 56개인데, 예전에는 75개였고, '고전소설강독'으로 개설된 학교 수는 19개인데, 예전에는 29개였다. 그렇다면 30여 개의 자리는 무엇으로 대체된 것일까? 고전문학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기에 위의 현황표에서는 빼지만,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또는 스토리텔링, 기획과 변용' 등의 과목명이 32개 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고전소설의 이해에 초점이 있거나 원전을 그대로 읽는 과목들은 줄어들고,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

28) 정선희, 「고전소설 연구와 교육의 소통-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고소설연구』 38, 2014, 135~138쪽.

www.kci.go.kr

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실습해보는 과목들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교육과의 경우도 '고전소설론'으로 개설된 학교 수가 15개에서 10개로 줄었고, '고전소설'이 과목명에 들어간 경우도 40개에서 28개로 줄었다. 소설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주로 '고전산문'이어서, 국문과의 경우 고전산문이 과목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18개에서 13개로 줄어든 것과는 반대 현상이다. 국어교육과에서는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고전산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일 듯하다. 문화콘텐츠 관련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적 측면에서 다루는 곳이 네 곳, 플립트 러닝 측면에서 다루는 곳이 한 곳 있을 뿐이어서 국문과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상황 조사 결과, 국어국문과에서의 '문화콘텐츠' 관련 과목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기에 이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또 하나는 '고전소설론' 과목이 여전히 78% 정도의 학과에서 개설되어 건재하지만, 고전소설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개론적인 성격의 강의 외에 하나 더 개설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는 고전문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거나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데에 효과적일 듯하다.

3. 대학에서의 고전소설 수업 방안

1) 고전소설로 다시 쓰기 실습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어국문학과의 고전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과목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수업을 해보면 고전문학의 자리는 축소되고 아주 단편적으로 활용되는 정도이기에, 필자는 고전서사문학의 서사를 변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서사로 다시 쓸 것을 제안하는 수업을 하였다. 2022년 2학기에 수업한 내

www.kci.go.kr

용[29]을 보고하면서 더 나은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국어국문학과 전공 과목이지만 타과생이 반 정도 있었으며 23명이 수강하였다.

수업의 초반부에는 현대의 문화콘텐츠 중에서 자신이 기획하고자 하는 분야의 본받을 만한 콘텐츠를 분석하게 하였다. 웹소설, 웹툰, 영화, 연극, 뮤지컬, 드라마, 게임, 광고, 화보 등 각 콘텐츠의 특성과 인기 요인 등을 알아보되, 소재가 고전서사문학인 것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웹소설을 기획하려는 학생은 고전서사문학을 소재로 한 웹소설 중에서 성공한 것으로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를 선택하여 〈심청전〉을 변용한 양상을 살피고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웹소설을 기획할 때에 유의할 사항, 중점을 둘 사항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선택한 콘텐츠를 보면, 게임 6명, 웹툰 3명, 웹소설 1명, 웹드라마 1명, 영화 5명, 연극 2명, 뮤지컬, 광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playlist), 패션화보, 지역축제가 각 1명씩이었다.

이후에는 자신이 다시 쓸 고전서사문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게 하

29) 주차별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 - 강의 내용과 방향 소개
2주 - 문화콘텐츠 개발과정, 스토리텔링의 유형과 방법
3주 - 문화콘텐츠 원천소재로서의 고전서사문학
4주 - 고전서사 콘텐츠 현황과 흐름, 문화콘텐츠와 고전서사 스토리텔링
5주 - 고전서사 콘텐츠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 고전서사 모바일 콘텐츠 기획
6주 - 성공한 문화콘텐츠 분석 1
7주 - 고전소설을 활용한 게임 서사 기획, 성공한 문화콘텐츠 분석 2
8주 - 기말보고서 계획서 작성
9주 - 고전서사를 활용한 웹툰 창작, 성공한 문화콘텐츠 분석 3
10주 - 한문소설과 지역 콘텐츠, 고전서사문학작품 다시 읽기
11주 - 고전서사문학작품 분석 1
12주 - 고전서사문학작품 분석 2
13주 - 기말 보고서 개요 발표 1
14주 - 기말 보고서 개요 발표 2
15주 - 기말 보고서 제출과 강의 총평

www.kci.go.kr

였다. 〈운영전〉을 선택했다면 그 서사 구조의 특성은 어떠한지, 인물들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뒤에, 이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같은 〈운영전〉을 선택했을지라도 어떤 학생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에 초점을, 어떤 학생은 안평대군의 고민과 역사적 현실에 초점을 두는 등 서사를 다르게 다시 써내려갔다. 학생들이 선택한 고전서사문학을 보면, 만복사저포기, 숙향전, 금방울전, 장화홍련전, 운영전, 주생전, 박씨전, 홍계월전, 방한림전, 심청전, 콩쥐팥쥐전, 남궁선생전, 유광억전, 검녀, 옥루몽, 박문수전, 처용설화, 비형랑 설화, 온달 설화, 만날고개 설화, 여우구슬, 구렁이 왕자, 열녀전들, 호동서락기 등 다양했다.

위의 두 가지 예비 작업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갈 기획을 하게 했는데, 그 기획의 핵심에는 선택한 문화콘텐츠에 맞게 고전서사문학의 서사를 다시 쓰는 일이 있었다. 문화콘텐츠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전서사문학을 읽고 이를 분석해본 뒤,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재설정하여 그 서사를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해 고전에 대한 지식이나 감상의 깊이와 폭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 뒤 지금의 자신이나 동시대의 콘텐츠 수요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생각함으로써 자기 탐색과 함께 인간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탐구하게 할 수 있었다. 영화나 게임을 기획한 학생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기존의 연구[30]에서 보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패션 화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인터랙티브 무비 형식의 웹드라마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패션 화보를 기획한 학생은 〈만복사저포기〉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화보

30) 정선희, 「고전소설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2017. 고전소설의 영화화, 드라마화, 뮤지컬화, 게임과 웹툰, 전시회, 방 탈출 카페 기획 등에 대해 논했었다.

www.kci.go.kr

를 구성하였는데, 이 소설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랑을 다루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으면서 많은 삽입시들로 인물들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포놀이와 같은 놀이 문화도 담을 수 있어 소재로 선택했다고 하였다. 외국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고전문학을 화보의 서사로 구성한 경우가 없으므로 낯설지만 새롭게 시도해본 것이다. 패션 잡지에 실리는 에디토리얼(editorial) 패션 사진들을 구상한 것인데, 여기서는 스토리나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장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완결시킨다. 이에 작품을 여섯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저포 놀이하는 양생과 짝을 구하는 하씨와의 조우, 둘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별하는 장면, 보련사 앞에서 하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장면, 하씨의 장례를 치르는 양생, 지리산에 들어가는 양생 등으로 구성하였다. 화면에 적절한 대화나 시를 넣고, 모델들은 주인공처럼 연기하는 사진을 넣으며 분위기는 조명과 의상, 소품으로 표현한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기획한 학생은 이 장르가 비주류이지만 문학과 음악을 함께 녹일 수 있어서 흥미롭다고 하였다. 문학을 소재로 한 예가 거의 없지만, 이상의 〈날개〉나 허난설헌의 한시들, 영화 〈장화 홍련〉을 소재로 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고전소설을 소재로 한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것인데, 젊은 층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재인 애정 갈등을 담은 〈주생전〉을 선택하였다. 고전소설 역사상 최초로 삼각관계를 그린 소설이면서 시를 통해 감정과 상황을 잘 전달하는 작품의 특성이 음악과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여 죽고만 여주인공 배도의 인물상을 바꾸어 사랑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서사를 바꾸었다. 작품에서 어떤 시를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했으며 어떤 장면의 인물에 어떤 음악이 어울릴지를 골라 리스트를 완성하였다.

www.kci.go.kr

인터랙티브 무비 형식의 웹드라마를 기획한 학생은 〈장화홍련전〉을 소재로 하여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관객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과 결말이 달라지는 영화 장르이기에 작품을 고를 때 이본이 많은 것으로 하였다. 〈장화홍련전〉의 경우, 크게 네 개의 계열이 있어서 결말 부분이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영화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죽은 장화와 홍련이 복수를 하고자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경우와 도움 없이 계모에게 직접 나타나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의 분기점에서 다른 가지로 나아가게 하는 재미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가부장제의 모순과 수직적 가족 위계 등의 문제를 환기시키기에 관객들의 관심을 끌 듯하다.

이외에도 〈옥루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통 놀이들을 가지고 TRPG (Tabletop Role Playing Game : 둘러앉아서 각자 분담된 캐릭터의 역할을 연기하는 게임)를 기획한 예가 참신했다. 마스터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유저들이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으며, 놀이를 통해 옛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현대의 문화콘텐츠에 맞게 고전서사를 다시 쓸 때에는 향유자들이 공감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인물형을 구상하였는데 대체로 주체적인 여성상, 탐색하고 여행하는 인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인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인물, 행복한 결말 등으로 구성하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첨예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환상적이거나 낭만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그리거나, 소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2) 주제어로 읽는 고전소설

주제어 즉 키워드(key words)로 고전소설을 읽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삶과 고전소설이 관련 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한 방안임과 동시에

www.kci.go.kr

현대문학 작품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방안이기도 하다. 기존에 『한국문학 주제론』이라는 책에서는 기형적 탄생, 변신, 금기와 수행, 악, 거울, 꿈, 수수께끼, 몸, 술, 길, 죽음, 금전, 동물, 집 등의 주제가 연원은 어디에 있으며 현대문학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어문학 여성 주제어 사전』에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울러 살피되, 여성과 관련된 주제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크게 인간관계, 자연, 공간과 사물, 몸, 제도와 이데올로기로 나눈 뒤, 인간관계는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형제와 자매, 딸, 아들, 가족, 친구, 이웃으로, 자연은 꽃, 나무, 새와 물고기, 동물, 벌레, 시간, 물, 불, 땅, 해와 달과 별 등의 주제어로 나눈 뒤 그 주제어가 표현되는 양상을 몇 개의 소제목으로 표제를 붙이고 설명하는 사전이다. 두 책에서 주제, 주제어라는 말은 주제, 주제어라는 의미 외에 중요 소재, 모티프 등과도 비슷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는데, 본고에서 말하는 주제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과목명으로는 주제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 '주제로 읽는 고전문학'이라고 하고 2023년 1학기에 국어국문학과 전공과목으로 수업[31]하였다.

---

31) 주차별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 - 강의 내용과 방향, 일정
2주 - 한국어문학 주제어 탐구 : 인간관계 / 친구
3주 - 한국어문학 주제어 탐구 : 공간과 사물 / 돈
4주 - 한국어문학 주제어 탐구 : 공간과 사물 / 음식, 책
5주 - 자기 표현 : 자존감 회복과 말의 힘
6주 - 여가와 예술 : 감정과 취향의 표현
7주 - 개인 소외 : 본성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8주 - 중간 과제 : 관심 주제어 논평하기
9주 - 노년 : 지혜와 공감
10주 - 부부 : 현실과 환상 사이
11주 - 죽음 : 세상을 향한 외침
12주 - 개요 발표 1
13주 - 개요 발표 2
14주 - 기말보고서 도입부 쓰기

www.kci.go.kr

먼저 주제어 탐구의 예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문학이 어떤 특징이 있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느끼게 하였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느꼈는가를 체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주제어를 보면, 고전문학에서는 딸의 교육자, 애정과 부성의 발현 측면이 잘 보였다면, 현대문학에서는 무정(無情)하거나, 증오와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하거나 콤플렉스의 기원이거나 불량스럽거나 백치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된다. '음식'이라는 주제어를 보면, 고전문학에서는 강요된 의무이거나 자발적 책무로서의 요리, 숭고하고 생명력을 주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면, 현대문학에서는 고독한 내면과 소통 부재의 표현이거나 외상(外傷)이 거식이나 알레르기로 표출되거나 육식과 폭력이 동질적이라거나 에로스적 욕망이 은유되다거나 취향이 반영되는 점들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주제어 표현 양상을 몇 가지 살핀 뒤, 고전소설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진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자기 표현 양상, 개인의 소외 양상, 여가나 취미 활동, 예술과 놀이, 노년, 죽음, 부부, 애정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소설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강의하고,[32] 학생들은 이러한 주제어들이 다른 고전문학 장르나 현대문학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찾아 보고서를 쓰게 하였다.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하기와 글쓰기의 장이 되기도 했던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을 통해 사대부 가문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생각을 담아낸 양상을 살폈다. 소설이지만 당대인들의 생활과 욕구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들의 일상과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인물들은 자기 존재가 흔들릴 때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위안을 얻기 위해 생애를 회고했고, 자신의 소신을 말해야 할 때에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득

15주 - 기말 보고서 제출과 강의 총평

32) 정선희, 『한국고전소설의 생활문화와 감성』, 보고사, 2020 참고.

www.kci.go.kr

했으며, 남편이나 애인, 황제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해명함으로써 말의 힘이 발휘되게 하였다.

고전소설은 가문의 창달이나 번영과 지속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족 구성원보다는 가문이나 가족 전체를 먼저 고려한다. 또 그 집단에서 공유하는 도덕적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등이 존재하여 이를 은연 중에 강조하면서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렇기에 집단에 새로 편입된 며느리나 사위, 아직 미성숙한 젊은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벌을 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기에 개인에게 가해지는 구조적인 폭력이나 배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존재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사회나 분위기에 반성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배우기도 하였다.

고전소설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여가 생활과 예술 활동을 통해 인격이 표출되거나 상처가 위로되고 마음이 정화되며 정신이 수양되고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았다. 현대의 가족 갈등과 노인 소외의 해법으로서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을 살피기도 하였다. 근현대 문학에서 노인이 가부장의 권위를 놓지 않으려는 욕심과, 실제로는 영향력을 잃어가는 자신 사이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고전에서는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서 자손들에게 자애로움을 베풀고 지혜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갈등을 조정하고 공감력을 발휘하여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면이 부각되었다. 한편, 고전소설 속 여성들이 불안, 공포, 죄책감, 자존감, 수치심, 모멸감과 울화, 남담과 자책, 적대감 등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양상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운영전〉, 〈주생전〉, 〈심생전〉, 〈숙영낭자전〉, 〈삼한습유〉, 〈유씨삼대록〉, 〈소현성록〉 등에서 여성인물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감정을 살핌으로써 그녀들이 자결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세상에 문제제기를 하려 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다양한 주제어들 중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택하여 그것이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www.kci.go.kr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였다.[33]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독서의 힘도 늘어나고 고전문학을 친근하게 생각하게도 되었다. 아울러 그 주제어가 표현하는 바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논하게 함으로써 쓰기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대학의 고전문학 관련 전공교육이 위기에 봉착했음에 공감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전소설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전국의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고전소설 관련 전공과목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교과목 개설 현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과목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고전서사문학의 서사를 변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서사로 다시 쓸 것을 제안하는 수업을 하였다. 수업의 초반부에는 현대의 문화콘텐츠 중에서 자신이 기획하고자 하는 분야의 본받을 만한 콘텐츠를 분석하게 하였다. 웹소설, 웹툰, 영화, 연극, 뮤지컬, 드라마, 게임, 광고, 화보 등 각 콘텐츠의 특성과 인기 요인 등을 알아보되, 소재가 고전서사문학인 것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콘텐츠 향유자들이 공감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인물형을

33) 예를 들어, '노년'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생은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에 대해 배운 뒤, 특히 여성 노인인 미얄할미라는 캐릭터에 주목하였다. 그녀가 멸시받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기 표현을 잘 하는 것을 보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서 비슷한 여성인물이 있는지 찾아 비교하면서 이러한 자기표현이 현대인의 소외감을 감소시키면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개인 소외'에서 주로 고전소설에서의 여성 인물들에 대해 배운 뒤, 이러한 소외 양상이 비단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인물에게도 있음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여러 주제어 중에서 '개인 소외'와 '죽음'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는데, 소외는 현재에도 누구나 자주 느끼는 감정이기에 그런 듯하고, 죽음은 항거나 자기 목소리 내기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했기에 이에 대해 공감하여 그런 듯하다.

www.kci.go.kr

구상하였는데 대체로 주체적인 여성상, 탐색하고 여행하는 인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인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인물, 행복한 결말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제어로 읽는 고전소설 수업에서는 주제어 탐구의 예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문학이 어떤 특징이 있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느끼게 하였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느꼈는가를 체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주제어들 중 하나를 택하여 그것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독서의 힘도 늘어나고 고전문학을 친근하게 생각하게도 되었다. 아울러 그 주제어가 표현하는 바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논하게 함으로써 쓰기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미현 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사전』 1~5권, 보고사, 2013, 각 권 1~420쪽 내외.

김수연, 「디지털 감수성과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메타버스를 활용한 〈고전문학과 영상〉(DT)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6, 이화어문학회, 2022, 5~28쪽.

김지혜, 「고전소설 〈이생규장전〉 다시쓰기 활동과 문학교육적 의의-'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2, 453~481쪽.

서보영, 「보조인물 중심의 고전소설 감상 양상 고찰-〈숙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20, 209~241쪽.

서보영, 「고전소설 다시쓰기에서 '저자적 독자'의 양상과 국어교육적 의미-유투브의 〈열녀춘향수절가〉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3,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209~241쪽.

서유경, 「고전문학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 123, 국어교육학회, 2007, 131~157쪽.

신현웅, 「지성 함양을 위한 텍스트로서의 '고'전문학」, 『한국고전연구』 5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29~55쪽.

엄태웅, 「대학 고전서사 교육의 목적과 방법 재고」,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2, 53~56쪽.

윤정안,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다양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간접 경험」, 『한국고전연구』 5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91~118쪽.

이재선 외, 『한국문학 주제론-우리 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서강대 출판부, 2009 재판, 8~607쪽.

이정원,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변화 방향」, 『대학 교육의 위기와 국어국문학의 변화 방향』, 『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2, 133~143쪽.

장예준, 「연극 〈양반전〉 및 낭독공연앨범 〈양반전〉의 원작 변개 양상과 성과-고전서사 및 고전소설 활용 콘텐츠 창작 교육 시사점 논의를 겸하여」, 『국제어문』 92, 국제어문학회, 2022, 431~465쪽.

정보미, 「고전소설교육에서 문화콘텐츠의 위상과 역할-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과 영화 〈전우치〉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46, 한성어문

www.kci.go.kr

학회, 2022, 65~100쪽.
정선희,「고전소설 연구와 교육의 소통-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고소설연구』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129~155쪽.
정선희,「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고전소설 활용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정선희,「고전소설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방안 연구」,『한국고전연구』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5~30쪽.
정선희,『한국고전소설의 교육적 확산과 문화적 전파』, 보고사, 2019, 1~312쪽.
정선희,『한국고전소설의 생활문화와 감성』, 보고사, 2020, 1~383쪽.
최홍원,「고전시가 위기의 진단과 문제 해결의 좌표-관계성의 복원과 이해의 지평을 중심으로」,『제66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2, 41~49쪽.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Korean classical novels as a college major
- focusing on writing practice and approaches to key words

Jeung, Sun-hee

This paper agrees with the crisis that college education faces related to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sis, it suggests ways to effectively teach Korean classical novels.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urriculum related to classical novels in the departments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The thing that stands out the most is the increase in subjects regarding cultural contents.

Accordingly, the author ran a curriculum that suggested students to create new cultural contents by taking sources from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the beginning of the curriculum, students analyzed worthy cultural contents in various fields. There are various types of cultural contents such as a web novel, web toon, movie, play, musical, drama, game and advertisement. Out of them, students chose contents based on classical literature, and investigated the features and factors of popularity. After that, they created new stories and character types that content consumers would be interested in. Many of these stories were about independent female characters, explorers and travelers, active communicators, characters who fall in love, and had a happy ending.

In the "Reading Korean classical novels through key words" class, students can learn the features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classical literature and contemporary literature by investigating key words. They can think deeply about the subjects by choosing a key word out of several and figuring out how the keyword is shaped in a novel. By reading several classical novels, students can develop reading skills

www.kci.go.kr

and get familiar with classical literature. Furthermore, they can develop writing skills by expressing how they can relate lessons from novels to their own lives.

Key Words college education, teaching methods of Korean classical novels, cultural contents, rewriting, key words

논문투고일: 2023.03.21.
심사완료일: 2023.05.03.
게재확정일: 2023.05.04.

www.kci.go.kr